



1 면 에서 계 속

전세계가 하루하루 기다려온 세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0분 속속들 떠나시어 회담장인 싱가포르 쉐르사섬의 카펠라호텔에 도착하시었다.

조미수뇌분들께서 첫 상봉을 하시게 될 회담장 로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었다.

조선반도가 물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

이 회례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실로 향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트럼프대통령 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었다.

조미수뇌분들의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진행되었다.

확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대통령 국가안전담당보좌관 존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대표단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적대적과거를 불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초부터 위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3 면 으 로 계 속